

# 여우누이

글 그림-김송민





옛날 어느 부부가 아들을 여럿 두었으니 딸이 없어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산신에게 기도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.

딸이 자라난 후 어느 날부터인가 날마다 집안의 가축이 죽어 나갔습니다.

## 02

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들들에게 이유를 알아보게 했습니다.

큰아들이 지켜보니 한밤중에 누이동생이 소의 항문에 기름을 칠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 먹는 것이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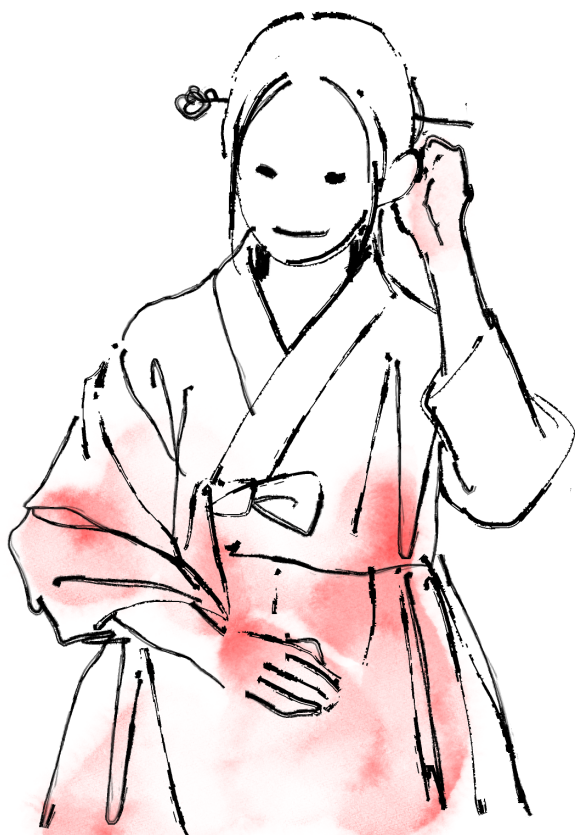


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.  
 다음날은 둘째 아들에게 지키라고 했으나 마찬가지였으므로 결국 막내아들에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.  
 막내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지만 “  
 감히 누이동생을 모함하느냐!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!” 쫓겨난 아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하여 살았습니다.

# 04

세월이 많이 흐르자 고향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진 아들이 집에 가 보겠다고 하니 그의 아내가 위험하다며 만류했습니다. 한사코 가려 하자 아내는 3개의 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. "그럼 이 3개의 병을 가져가서 위급한 상황에 쓰세요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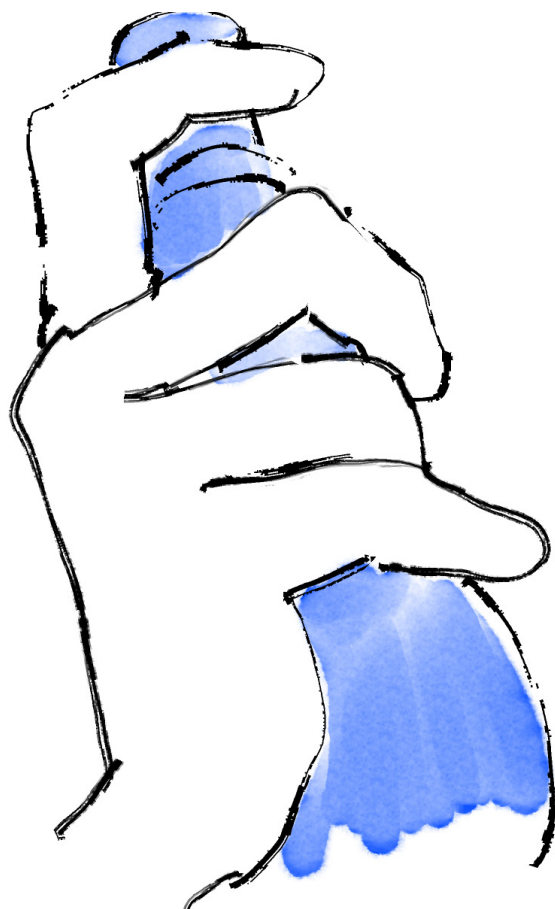


옛집을 찾아가니 집은 쭉대밭이 되어 있고 가축과 사람을 다 잡아먹은 누이가 혼자 막내 오라버니를 반기면서 "오라버니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!"라고 했습니다.

# 06

"전이 먹고 싶으니 밭에서 부추를 따오려무나" 그 집을 벗어날 틈을 얻으려고 꾀를 썼으나 누이는 오빠 몸에 끈을 매어 놓고 밭에 갔습니다.





그 사이 오빠는 끈을 풀어 문고리에 매어 놓고 달아났지만 이 사실을 안 누이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. 여우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잡힐 것 같아 다급해진 오빠는 아내가 준 병을 사용했습니다.



파란 병을 던지니 새파란 강이 나타났지만  
누이가 강물을 헤엄치며 따라왔고





하얀 병 하나를 던지니 가시덤불이 솟아나서 누이를 찌르  
는데 아무리 찔려도 죽지 않고 따라왔습니다.

마지막 붉은 병을 내던지니 불이 나며  
누이가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.



